

“인류사 바꿀 고대 흑피옥 유물 발굴” 주장 김희용씨

고서적·골동품 탐닉 유물 추적자

“인류사를 뒤바꿀 초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 (본보 9월1일 1면)고 주장하는 김희용(59·광주시 북구)씨가 누구인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중국 초 고대문명으로 알려진 홍산문화(紅山文化: BC 4000~3000년)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유물인 흑피옥(黑皮玉) 조각상을 16년 동안 중국대륙에서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도골판들과 접촉해 조각상을 입수했다는 본보의 1일자 보도와는 달리, 중국내 고유물시장을 통해 흑피옥 조각상들을 구입해왔으며 최종적으로 2006년 8월 20~23일 중국 내몽고 자치주의 한 황야에서 유물을 직접확인하고 이때부터는 흑피옥 조각상들을 구입하거나 한국으로 반출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현장에서 본 순간 이 조각상들이 엄청난 인류문화재임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중국의 매장문화재를 밀반출하는 것이 되는 중전의 수집행위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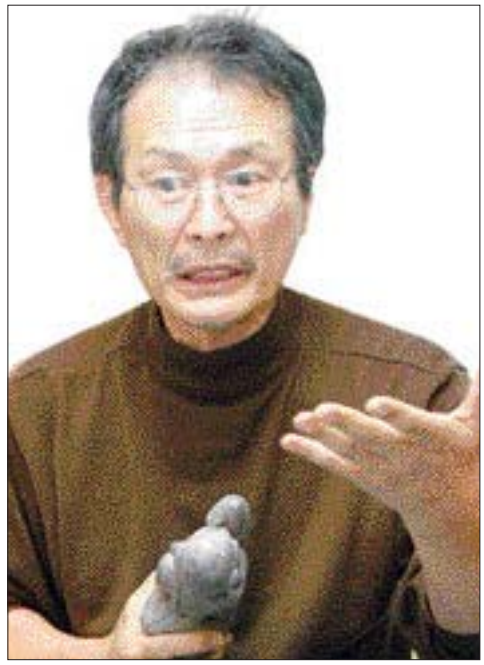
김씨는 이 경위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편지에 소상히 적었다. 고고학자가 아닌 김씨는 제도권 역사학계에서는 ‘기인’으로 통하고 재야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문화재에 정통한 ‘해외통’으로도 불린다. 지난 1994년까지 서울에서 골동품을 취급하는 가야화랑을 운영했던 그는 중국 고대 청동품 골동품 1점을 최저가 1억 달러에 해외경매시장에 내놓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김씨의 ‘깜짝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93년에는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다뉴세문경을 골동품시장에서 입수한 뒤 북한에 기증, 북측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남북 합작 단군대신전 건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고대 청동기 유물 15점을 북측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야선 “北·中 문화재 전문 해외통”

94년까지 서울서 가야화랑 운영

“학계에선 ‘가짜’ 말 많지만 공개 발굴하면 다 밝혀질 것”



고유물 수집가 김희용씨가 지난해 12월 흑피옥 조각상을 공개한 뒤 발굴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한메기자 choi@kwangju.co.kr

이런 일련의 행보 때문에 주목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본보 취재진을 만나서도 흑피옥 조각상을 공개하는 것에 적절한 부담을 느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차례 국내 고고학자들에게 유물을 공개했으나, 진가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집한 흑피옥 조각상 500여점은 취재진은 물론 동행한 고고학자까지 당황할 정도로 뛰어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것들이었다. 그는 흑피옥 조각상은 지금까지 배일에 가려져 있던 초 고대문명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신석기 문화로 간주되는 홍산문화에서 작은 옥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청옥(靑玉)에 걸은 도료를 입힌 이런 조각상은 지금까지 발굴된 최고(最古)유물에 앞선 고도의 문명임을 입증했습니다. 유물 발굴지에서 출토된 인공의 연대를 측정할 경우 시대가 1만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서적과 골동품을 수집했던 그가 중국에서 이 유물을 추적한 것은 순전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1991년경 일본에서 우연히 만난 노(老)고고학자의 귀넷말이 흑피옥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갔고, 말로만 들던 흑피옥을 골동품 시장에서 찾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김씨는 흑피옥 조각상이 가짜라고 판정하는 국내 고고학계에 대해 대단히 분개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다.

“국내에 중국 고대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 당연히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당국에 조각상 전부를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김씨는 또 “학계와 언론이 동참한 가운데 현장에서 공개발굴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이 유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중국의 몫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연과 인간, 삶의 회상

서양화가 한희원

10월4일까지 전주 오스갤러리

서정적인 화풍으로 자연과 인간을 스케치해온 서양화가 한희원씨가 전주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한씨는 오는 10월4일까지 오스갤러리(소양점·롯데백화점 전주점), 오스하우스(운암점)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자연과 인간, 삶을 돌아보게하는 신작들. ‘눈 내리는 날’ ‘바람이 있는 언덕마을’ ‘눈 내리는 정미소’는 차가운 겨울 바람으로 상징되는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런 화풍은 한 때 민중미술에 몰입했던 한씨의 시선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그는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



‘눈 내리는 날’

는 따뜻한 시선을 한결같이 작품에 담아 오고 있다. 자연을 화폭에 담은 ‘가을이 깊어’ ‘초저녁별’ ‘겨울강’은 고즈넉한 가을 풍경과 겨울강 등 시적인 풍광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현대인들에게 깊은 사색의 공간을 열어준다.

한씨는 작가 노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 그림 속에 이런 힘이 없다면 안타까울 뿐이다”고 겸손해 했다.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12회 개인전을 가졌으며 오지호 미술상 기념전, 한국현대미술의 투영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룹 ‘새벽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다리’ ‘무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3-224-711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 독주회

6일 드림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사진) 독주회가 6일 오후 7시30분 드림아트홀에서 열린다.

3년만에 여는 이번 독주회에서 이씨는 생상스가 ‘쾨지네르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에게 헌정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김스의 ‘소나타 D단조’ 등을 들려준다.



또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C단조 작품번호 45’를 처음 연주

하는 등 새로운 도전도 시도한다.

서울대 음악학과와 별개로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이씨는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단원,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과 금호사 중주단 단원을 역임했다.

피아노 반주는 전남대 예술대학 독일 린트 음악에서 수학한 후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조현영씨가 맡는다. 문의 062-651-411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월부터 강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야기(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인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 하기를 벗어나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으로 광고,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 아이클을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세차례(월·

수·금 오후 7시~10시) 진흥원 글로벌 CGI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 스토리텔링학회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만화·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과정과 게임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나누어 강의한다.

참여 강사는 박기수(중앙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창완(세종대 문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김희재(영화 ‘공공의 적’ ‘실미도’ 시나리오 작가), 박인하(만화평론가), 이기욱(게임아카데미 교수) 등 20여명이다. 전액 무료로 교육하며 접수 마감은 5일까지다. 문의 062-350-240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

광주시향, 4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8회 ‘해설이 있는 화요음악회’가 4일 오전 11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가을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김진희, 메조 소프라노 전진, 플루트의 이현경씨가 오페라 ‘카르멘’ 중 ‘세기달라’, 주나의 ‘베니스의 사육제’ 등을 들려준다. 또 현악상블이 모차르트의 ‘베베르메토 라장조 작품 136’,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등을 선사한다.

임흥규(광주시향 부지휘자)씨가 지휘와 해설을 맡는다. 무료 공연. 문의 062-524-508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탄생 200주년 김삿갓 詩와 삶 조명

전문인협회 8~9일 전남도청 등서 토론회·문학기행

탄생 200주년을 맞는 김삿갓의 작품과 삶을 조명하는 문학 행사가 열린다.

전남전문인협회(회장 조수영)는 오는 8~9일 전남도청 등에서 ‘종명지(終命地)’에서 본 김삿갓의 시와 삶’을 주제로 토론회와 문학기행 행사를 갖는다. 8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이규식

(한남대 교수), 김영관(조선대 교수), 손광은(전남대 교수)씨 등이 패널로 나서 김삿갓의 시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이어 9일에는 김삿갓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종명지인 화순 동복마을과 왕인박사 유적지, 영랑생가 등을 둘러보는 문학기행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6개 시도 문인협회 소속 문인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수영 전남전문인협회장은 “이번 문학행사를 통해 풍자시인, 방랑시인으로만 알려진 김삿갓이 아름다운 언어로 작품을 써낸 서정시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3-9956.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안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덕역사거리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할토시랑 영화시랑 *애매 www.joyabc.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시뮬레이션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 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ARS 전화예매 227-1960